

2019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목 차

조사목적 및 조사설계

I. 조사 배경 및 목적	7
II. 조사 설계	7
1. 조사 대상 및 사례수	7
2. 조사 도구 및 조사 내용	8
3. 설문내용 및 문항의 신뢰도	9
4. 조사의 진행과 자료의 분석	9
1) 자료수집 방법 및 결과	9
2) 조사 기간	9
3) 자료 분석 방법	9

조사결과의 분석

I. 조사결과의 분석	13
1.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	13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3
2) 장애관련 특성	22
2. 욕구조사 결과	28
1) 개인적인 문제	28
2) 영역별 욕구	35
3) 건의사항	47

요약 및 제언

I. 요약 및 제언	51
1. 요약	51
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51
2) 욕구조사결과	55
2. 제언	59

부록 2019년 남동구 지역장애인욕구조사 설문지	63
----------------------------------	----

[표목차]

< 조사 설계 >

[표 II-1] 설문지 내용	8
[표 II-2] 설문문항 신뢰도	9
[표 II-3]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9

< 조사결과 분석 >

[표 I-1] 장애인과의 관계	13
[표 I-2] 성별	13
[표 I-3] 연령	14
[표 I-4]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	15
[표 I-5] 경제수준	16
[표 I-6] 수급자 급여 비율	16
[표 I-7] 결혼상태	17
[표 I-8] 학력	17
[표 I-9] 가구 총수입	18
[표 I-10] 주거형태	18
[표 I-11] 가족구성형태	19
[표 I-12] 함께 사는 가족 수	19
[표 I-13] 가족 내 장애인 수	20
[표 I-14] 거주지역	20
[표 I-15] 남동거주기간	21
[표 I-16] 장애등록 유무	22
[표 I-17] 장애 미등록 사유	22
[표 I-18] 장애유형	23
[표 I-19]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	24
[표 I-20]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	25
[표 I-21] 장애등급	26
[표 I-22]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	27
[표 I-23] 경제적 어려움	28
[표 I-24] 취업의 어려움	28
[표 I-25] 편의시설의 어려움	29
[표 I-26] 교육의 어려움	29
[표 I-27]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30
[표 I-28]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	30
[표 I-29] 가족관계의 어려움	31

[표 I -30]	심리·사회적 어려움	31
[표 I -31]	대인관계의 어려움	32
[표 I -32]	일상생활의 어려움	32
[표 I -33]	문화생활의 어려움	33
[표 I -34]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순위	33
[표 I -35]	어려움 발생 시 도움 요청하는 곳	34
[표 I -36]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35
[표 I -37]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36
[표 I -38]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37
[표 I -39]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38
[표 I -40]	향후 취업 의사	39
[표 I -41]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39
[표 I -42]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40
[표 I -43]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41
[표 I -44]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42
[표 I -45]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43
[표 I -46]	희망하는 경제지원 서비스	44
[표 I -47]	희망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44
[표 I -48]	희망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45
[표 I -49]	희망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45
[표 I -50]	희망하는 건강지원 서비스	46
[표 I -51]	희망하는 문화여가 서비스	46

조사목적 및 조사설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조사 배경 및 목적

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설문조사를 이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별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상반기 중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인 만족도 및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시설별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설과 관련한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추가로 프로그램 별 수시로 상담을 통해 개진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대표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대상자 의견의 사각지역을 최소화 하고자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회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설 및 프로그램 환경 개선,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방향 모색 등 조사내용을 근거로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욕구조사를 통하여 지역장애인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향후 정책방향제시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2) 남동구 지역 욕구조사를 통하여 이용인의 욕구를 알아보고, 차기년도 및 중·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3) 욕구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용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본 보고서는 2019년 11월에 실시된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실태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II. 조사 설계

1. 조사 대상 및 사례수

2019년 11월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타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장애인 등 욕구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남동구 비거주 장애인은 사전에 배제하였고(최근 거주지를 남동구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자는 설문에 응답), 비동의자 등 현실적 답변이 어려운 대상자를 제외한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설문지 350부를 통계 분석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2018 남동구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실태조사(2019)」, 「갈산종합사회복지관, 2017 지역주민욕구 조사 보고서(2017)」 및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18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2019)」,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17 지역사회욕구조사 보고서(2018)」, 「평택복지재단,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2011)」 설문문항을 일부 반영하여 복지관 상황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 하였으며,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개인적 문제, 복지관 이용, 장애인복지 영역별 서비스 욕구, 건의사항 등 기관에서 파악하고자하는 욕구를 알기위해 각 부분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표Ⅱ-1]을 참고하면 된다.

[표Ⅱ-1] 설문지 내용

구분	문항수	내용
일반적 특성	13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 경제수준, 결혼상태, 학력, 가구 월평균소득, 주택소유형태, 가족구성형태, 함께 사는 가족 수, 가족 중 장애인 수, 거주 지역, 남동구거주기간
장애 특성	4	장애등록유무, 장애미등록사유, 장애유형, 장애정도
개인적 문제	3	본인이나 가족이 현재 생활하며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 순위, 어려움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곳
영역별 욕구	11	문화·여가 서비스(이용목적, 희망하는 서비스), 교육 서비스(이용목적, 희망하는 서비스), 운동·건강증진 서비스(이용목적, 희망하는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취업의향, 이용목적,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희망하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재가 서비스(희망하는 서비스, 세부분야별 희망하는 서비스)
건의사항	1	지역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의사항
총문항	32	

3. 설문내용 및 문항의 신뢰도

신뢰도 검증은 설문문항들이 일관성을 갖고 적절히 구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아래의 [표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 속 어려움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 계수(α)가 .925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Ⅱ-2] 설문문항 신뢰도

신뢰도 계수(α)	문항번호	문항수
.925	3(①~⑪)	11

4. 조사의 진행과 자료의 분석

1) 자료수집 방법 및 결과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담당직원들이 이용인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담당 직원이나 1층에 설문지 회수함을 배치하여 응답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직접 설문 응답이 가능한 이용인들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직접 응답이 불가능한 이용인들의 경우는 설문지를 이용인의 각 가정으로 보내어 주부양자들이 응답한 것을 담당 직원들이 수거하여 설문 회수함에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Ⅱ-3]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구분	설문지(명)
설문지 배부	500명
설문지 회수	350명
회 수 율(%)	70.0%

2) 조사 기간

이번 조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설문지 배부 및 회수 등의 일련의 작업들이 6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설문지 개발은 10월 7일~11월 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배부 및 조사기간은 11월 11일~11월 22일까지 2주간 진행 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지의 모든 항목들은 빈도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인 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이외에도 각 변수수준에 따라 분석방법을 변경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9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조사결과의 분석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① 장애인과의 관계

장애인과의 관계에서는 본인 42.4%(146명), 가족 46.5%(160명), 외부인 11.1%(38명)로 조사되었다.

[표 I-1] 장애인과의 관계

구분	빈도(명)	비율(%)
본인	146	42.4
가족	160	46.5
외부인	38	11.1
계	344	100.0

결측값 제외(N=6)

② 성별

성별 분포는 ‘남자’ 50.6%(175명), 여자 49.4%(171명)로 조사되어 남자가 여자보다 1.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 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남자	175	50.6
여자	171	49.4
계	346	100.0

결측값 제외(N=4)

③ 연령

연령분포를 보면 0-9세 이하가 13.8%(45명), 10-19세 이하가 10.7%(35명), 20-29세 이하가 22.3%(73명), 30-39세 이하가 12.5%(41명), 40-49세 이하가 11.9%(39명), 50-59세 이하가 11.6%(38명), 60-69세 이하가 9.5%(31명), 70세 이상이 7.7%(25명)로 나타나 20-29세 이하 연령대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0-9세	45	13.8
10-19세	35	10.7
20-29세	73	22.3
30-39세	41	12.5
40-49세	39	11.9
50-59세	38	11.6
60-69세	31	9.5
70세-	25	7.7
계	327	100.0

결측값 제외(N=23)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보면 남녀모두 20-29세 이하 응답자가 22.1%(36명), 22.8%(37명)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남성은 0-9세 이하 19.0%(31명), 여성은 40-49세 이하, 50-59세 이하가 각각 14.8%(24명)로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남성은 30-39세 이하 16.0%(26명), 여성은 60-69세 이하 11.7%(19명)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0-9세 이하 응답자는 남성이 19.0%, 여성이 8.6%로 약 2배 이상 남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응답자 연령별 성별 분포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 -4]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

구분	성별		계
	남자	여자	
0-9세	31	14	45
	19.0%	8.6%	13.8%
10-19세	21	14	35
	12.9%	8.6%	10.7%
20-29세	36	37	73
	22.1%	22.8%	22.4%
30-39세	26	15	41
	16.0%	9.3%	12.6%
40-49세	14	24	38
	8.6%	14.8%	11.7%
50-59세	13	24	38
	8.0%	14.8%	11.7%
60-69세	12	19	31
	7.4%	11.7%	9.5%
70세-	10	15	25
	6.0%	9.4%	7.6%
계	163	162	326
	100.0%	100.0%	100.0%

④ 경제수준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을 보면 수급자 27.6%(94명), 차상위 9.7%(33명), 비수급자(일반) 62.7%(214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5] 경제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수급자	94	27.6
차상위	33	9.7
비수급자(일반)	214	62.7
계	341	100.0

결측값 제외(N=9)

[표 I -6] 수급자 급여 비율

구분		빈도	비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수급자	생계급여	59	41.6
	의료급여	42	29.6
	주거급여	38	26.7
	교육급여	3	2.1
계		142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 가능 항목으로 [표 I -5]에 수급자 빈도(명) 값과 상이함.

⑤ 결혼상태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를 보면 미혼이 65.0%(219명), 기혼이 21.7%(73명), 이혼이 7.4%(25명), 사별이 5.3%(18명), 별거 0.6%(2명)로 나타나 미혼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 결혼상태

구분	빈도(명)	비율(%)
미혼	219	65.0
기혼	73	21.7
이혼	25	7.4
사별	18	5.3
별거	2	0.6
계	337	100.0

결측값 제외(N=13)

⑥ 학력

조사대상자의 학력 수준은 미취학이 12.5%(42명), 초등학교 재학·졸업이 18.8%(63명), 중학교 재학·졸업이 8.0%(27명),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49.4%(166명), 대학교 재학·졸업이 10.7%(36명), 무학이 0.6%(2명)로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8] 학력

구분	빈도(명)	비율(%)
미취학	42	12.5
초등학교 재학·졸업	63	18.8
중학교 재학·졸업	27	8.0
고등학교 재학·졸업	166	49.4
대학교 재학·졸업	36	10.7
무학	2	0.6
계	336	100.0

결측값 제외(N=14)

⑦ 가구 월평균 총소득

조사대상자의 가구 월평균 총소득수준을 보면 100만원 미만인 27.4%(89명), 100-200만원 미만 20.9%(68명), 200-300만원 미만 16.6%(54명), 300-400만원 미만 10.8%(35명), 400-500만원 미만 14.5%(47명), 500만원 이상이 9.8%(32명)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9] 가구 총수입

구분	빈도(명)	비율(%)
-100만원 미만	89	27.4
100-200만원 미만	68	20.9
200-300만원 미만	54	16.6
300-400만원 미만	35	10.8
400-500만원 미만	47	14.5
500만원 이상-	32	9.8
계	325	100.0

결측값 제외(N=25)

⑧ 주거형태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를 보면 자가가 51.3%(175명), 전세 13.2%(45명), 월세 13.5%(46명), 영구임대 16.4%(56명), 기타 5.6%(19명)로 나타나 자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에는 ‘그룹홈’에 거주 중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표 I -10] 주거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자가	175	51.3
전세	45	13.2
월세	46	13.5
영구임대	56	16.4
기타	19	5.6
계	341	100.0

결측값 제외(N=9)

⑨ 가족구성형태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형태를 보면 1인가구(독거) 17.3%(58명), 부부 8.7%(29명), 부부 + 자녀 51.9%(174명), 한부모+ 자녀 15.8%(53명), 조부모+ 부부+ 손자녀 3.3%(11명), 조부모 + 손자녀 1.5%(5명), 형제 1.5%(5명)로 나타나 부부+ 자녀가 총 응답수의 1/2을 차지했다.

[표 I -11] 가족구성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1인가구(독거)	58	17.3
부부	29	8.7
부부+ 자녀	174	51.9
한부모+ 자녀	53	15.8
조부모+ 부부+ 손자녀	11	3.3
조부모+ 손자녀	5	1.5
형제	5	1.5
계	335	100.0

결측값 제외(N=15)

⑩ 함께 사는 가족 수

조사대상자의 함께 사는 가족 수를 보면 1명 14.2%(47명), 2명 18.4%(61명), 3명 24.2%(80명), 4명 36.0%(119명), 5명 6.0%(20명), 6명 1.2%(4명)로 나타났다.

[표 I -12] 함께 사는 가족 수

구분	빈도(명)	비율(%)
1명	47	14.2
2명	61	18.4
3명	80	24.2
4명	119	36.0
5명	20	6.0
6명	4	1.2
계	331	100.0

결측값 제외(N=19), 당사자 포함

⑪ 가족 내 장애인 수

조사대상자의 가족 내 장애인 수를 보면 1명이 91.2%(281명), 2명 6.5%(20명), 3명 1.3%(4명), 4명 1.0%(3명)로 나타나 가족 내 장애인 수가 1명인 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측값은 N=42을 보였는데, 본인을 포함한 장애인 수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결측값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 I -13] 가족 내 장애인 수

구분	빈도(명)	비율(%)
1명	281	91.2
2명	20	6.5
3명	4	1.3
4명	3	1.0
계	308	100.0

결측값 제외(N=42), 당사자 포함

⑫ 거주지역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을 보면 남동구 80.2%(279명), 인천타지역 15.8%(55명), 타시도 4.0%(14명)로 나타나 남동구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4]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남동구	279	80.2
인천타지역	55	15.8
타시도	14	4.0
계	348	100.0

결측값 제외(N=2)

⑬ 남동구 거주기간

조사대상자의 남동구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 1.5%(4명), 1년 초과~5년 이하 19.4%(54명), 5년 초과~10년 이하 21.2%(59명), 10년 초과 57.9%(161명)로 나타나 10년 초과 거주자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남동구거주기간은 16.2년으로 나타났다.

[표 I -15] 남동구거주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4	1.5
1년 초과~5년 이하	54	19.4
5년 초과~10년 이하	59	21.2
10년 초과	161	57.9
계	278	100.0

남동구거주자 278명 중 결측값 제외(N=1)

2) 장애관련 특성

① 장애등록 유무

조사 대상의 장애등록 유무는 등록 92.3%(323명), 미등록이 7.7%(27명)로 나타나 응답한 장애인 10명 중 1명꼴로 장애 미등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6] 장애등록 유무

구분	빈도(명)	비율(%)
등록	323	92.3
미등록	27	7.7
계	350	100.0

② 장애 미등록 사유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를 몰라서’가 4.2%(1명), ‘장애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가 20.8%(5명), ‘등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8.4%(2명),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20.8%(5명), ‘등록장애에 해당되지 않아서’가 25.0%(6명), 기타가 20.8%(5명)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나이가 어려서’, ‘내년에 등록 예정’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I -17] 장애 미등록 사유

구분	빈도(명)	비율(%)
등록 절차를 몰라서	1	4.2
장애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5	20.8
등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2	8.4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5	20.8
등록장애에 해당되지 않아서	6	25.0
기타	5	20.8
계	24	100.0

장애 미등록 27명 중 결측값 제외(N=3)

③ 장애 유형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 15.7%(58명), 시각장애 4.1%(15명), 뇌병변장애 15.4%(57명), 청각장애 5.1%(19명), 언어장애 7.3%(27명), 지적장애 27.8%(103명), 자폐성장애 12.7%(47명), 정신장애 5.4%(20명), 신장장애 3.0%(11명), 호흡기장애 1.1%(4명), 안면장애 0.3%(1명), 장루·요루장애 0.3%(1명), 뇌전증장애 1.8%(7명)로 나타나 지적장애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8] 장애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지체장애	58	15.7
시각장애	15	4.1
뇌병변장애	57	15.4
청각장애	19	5.1
언어장애	27	7.3
지적장애	103	27.8
자폐성장애	47	12.7
정신장애	20	5.4
신장장애	11	3.0
호흡기장애	4	1.1
안면장애	1	0.3
장루·요루장애	1	0.3
뇌전증장애	7	1.8
계	370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여성 둘 다 지적장애 응답자가 27.7%(43명), 28.9%(43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성은 자폐성장애 17.4%(27명), 여성은 지체장애 24.2%(36명)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자폐성장애는 남성이 17.4%, 여성이 6.0%로 약 2배 이상 남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언어장애는 남성이 7.1%, 여성이 3.4%로 약 2배 이상 남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응답자 성별 연령별 분포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 -19]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

구분	성별		계
	남자	여자	
지체장애	20 12.9%	36 24.2%	57 18.7%
시각장애	7 4.5%	6 4.0%	13 4.3%
뇌병변장애	24 15.5%	27 18.1%	51 16.7%
청각장애	9 5.8%	7 4.7%	16 5.2%
언어장애	11 7.1%	5 3.4%	16 5.2%
지적장애	43 27.7%	43 28.9%	86 28.2%
자폐성장애	27 17.4%	9 6.0%	36 11.8%
정신장애	9 5.8%	7 4.7%	16 5.3%
신장장애	5 3.3%	4 2.6%	9 3.0%
호흡기장애	0 0.0%	3 2.0%	3 1.0%
안면장애	0 0.0%	1 0.7%	1 0.3%
장루·요루장애	0 0.0%	1 0.7%	1 0.3%
계	155 100.0%	149 100.0%	305 100.0%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에서 0~9세는 뇌병변장애가 48.6%(17명)으로 가장 많았고, 10~19세는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각각 34.4%(11명), 20~29세는 지적장애 60.9%(42명), 30~39세는 지적장애 43.2%(16명), 40~49세는 지체장애 32.2%(10명), 50~59세는 지체장애 36.1%(13명), 60~69세는 뇌병변장애 26.9%(7명), 70세~는 지체장애 54.6%(12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자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I -20]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

구분	연령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지체장애	0 0.0%	1 3.1%	8 11.6%	6 16.3%	10 32.2%	13 36.1%	6 23.0%	12 54.6%	56
시각장애	1 2.9%	0 0.0%	0 0.0%	1 2.7%	2 6.5%	4 11.1%	1 3.9%	1 4.5%	10
뇌병변장애	17 48.6%	11 34.4%	3 4.4%	4 10.8%	3 9.6%	2 5.6%	7 26.9%	1 4.5%	48
청각장애	0 0.0%	0 0.0%	2 2.9%	0 0.0%	1 3.2%	2 5.6%	3 11.5%	7 31.9%	15
언어장애	6 17.1%	1 3.1%	1 1.4%	3 8.1%	2 6.5%	0 0.0%	1 3.9%	0 0.0%	14
지적장애	5 14.3%	11 34.4%	42 60.9%	16 43.2%	4 12.9%	5 13.9%	1 3.9%	0 0.0%	84
자폐성장애	6 17.1%	8 25.0%	10 14.6%	3 8.1%	2 6.5%	3 8.3%	1 3.9%	0 0.0%	33
정신장애	0 0.0%	0 0.0%	1 1.4%	3 8.1%	4 12.9%	4 11.1%	2 7.6%	0 0.0%	14
신장장애	0 0.0%	0 0.0%	1 1.4%	0 0.0%	2 6.5%	2 5.6%	3 11.5%	1 4.5%	9
호흡기장애	0 0.0%	0 0.0%	0 0.0%	1 2.7%	0 0.0%	1 2.7%	1 3.9%	0 0.0%	3
안면장애	0 0.0%	0 0.0%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장루·요루장애	0 0.0%	0 0.0%	0 0.0%	0 0.0%	1 3.2%	0 0.0%	0 0.0%	0 0.0%	1
계	35 100%	32 100%	69 100%	37 100%	31 100%	36 100%	26 100%	22 100%	288

④ 장애 등급

조사 대상의 장애 등급 분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81.5%(259명),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8.5%(59명)로 나타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21] 장애등급

구분	빈도(명)	비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59	81.5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9	18.5
계	318	100.0

결측값 제외(N=32)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 지체장애가 16.3%(40명), 시각장애 2.0%(5명), 뇌병변장애 19.2%(47명), 청각장애 2.9%(7명), 언어장애 2.9%(7명), 지적장애 33.1%(81명), 자폐성장애 14.7%(36명), 정신장애 5.3%(13명), 신장장애 2.0%(5명), 호흡기장애 1.2%(3명), 안면장애 0.0%(0명), 장루·요루장애 0.4%(1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중증장애 중 지적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는 지체장애 7.4%(18명), 시각장애 12.3%(7명), 뇌병변장애 7.0%(4명), 청각장애 15.8%(9명), 언어장애 12.3%(7명), 지적장애 5.3%(3명), 신장장애 7.0%(4명), 호흡기장애 0.0%(0명), 안면장애 1.8%(1명), 장루·요루장애 0.0%(0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경증장애 중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I -22]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

구분	장애등급		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장애	40 16.3%	18 7.4%	58
시각장애	5 2.0%	7 12.3%	12
뇌병변장애	47 19.2%	4 7.0%	51
청각장애	7 2.9%	9 15.8%	16
언어장애	7 2.9%	7 12.3%	14
지적장애	81 33.1%	3 5.3%	84
자폐성장애	36 14.7%	1 1.8%	37
정신장애	13 5.3%	3 5.3%	16
신장장애	5 2.0%	4 7.0%	9
호흡기장애	3 1.2%	0 0.0%	3
안면장애	0 0.0%	1 1.8%	1
장루·요루장애	1 0.4%	0 0.0%	1
계	245 100.0%	57 100.0%	302

2. 욕구조사 결과

1) 개인적인 문제

① 경제적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어렵다.’ 16.7%(58명), ‘어렵다.’ 28.8%(100명), ‘보통이다.’ 40.6%(141명), ‘어렵지 않다.’ 10.1%(35명), ‘전혀 어렵지 않다.’ 3.8%(13명)로 나타났다.

[표 I -23] 경제적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어렵다.	58	16.7
어렵다.	100	28.8
보통이다.	141	40.6
어렵지 않다.	35	10.1
전혀 어렵지 않다.	13	3.8
계	347	100.0

결측값 제외(N=3)

② 취업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어렵다.’ 34.4%(116명), ‘어렵다.’ 30.0%(101명), ‘보통이다.’ 23.1%(78명), ‘어렵지 않다.’ 8.3%(28명), ‘전혀 어렵지 않다.’ 4.2%(14명)로 나타났다. ‘매우 어렵다.’의 응답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 -24] 취업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어렵다.	116	34.4
어렵다.	101	30.0
보통이다.	78	23.1
어렵지 않다.	28	8.3
전혀 어렵지 않다.	14	4.2
계	337	100.0

결측값 제외(N=13)

③ 편의시설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편의시설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어렵다.’ 15.2%(52명), ‘어렵다.’ 25.9%(89명), ‘보통이다.’ 43.1%(148명), ‘어렵지 않다.’ 12.5%(43명), ‘전혀 어렵지 않다.’ 3.3%(11명)로 나타났다.

[표 I -25] 편의시설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어렵다.	52	15.2
어렵다.	89	25.9
보통이다.	148	43.1
어렵지 않다.	43	12.5
전혀 어렵지 않다.	11	3.3
계	343	100.0

결측값 제외(N=7)

④ 교육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어렵다.’ 20.5%(69명), ‘어렵다.’ 28.8%(97명), ‘보통이다.’ 36.2%(122명), ‘어렵지 않다.’ 11.3%(38명), ‘전혀 어렵지 않다.’ 3.2%(11명)로 나타났다.

[표 I -26] 교육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어렵다.	69	20.5
어렵다.	97	28.8
보통이다.	122	36.2
어렵지 않다.	38	11.3
전혀 어렵지 않다.	11	3.2
계	337	100.0

결측값 제외(N=13)

⑤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어렵다.’ 16.6%(57명), ‘어렵다.’ 28.6%(98명), ‘보통이다.’ 38.5%(132명), ‘어렵지 않다.’ 13.4%(46명), ‘전혀 어렵지 않다.’ 2.9%(10명)로 나타났다.

[표 I -27]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어렵다.	57	16.6
어렵다.	98	28.6
보통이다.	132	38.5
어렵지 않다.	46	13.4
전혀 어렵지 않다.	10	2.9
계	343	100.0

결측값 제외(N=17)

⑥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어렵다.’ 18.7%(62명), ‘어렵다.’ 28.9%(96명), ‘보통이다.’ 34.9%(116명), ‘어렵지 않다.’ 12.7%(42명), ‘전혀 어렵지 않다.’ 4.8%(16명)로 나타났다.

[표 I -28]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어렵다.	62	18.7
어렵다.	96	28.9
보통이다.	116	34.9
어렵지 않다.	42	12.7
전혀 어렵지 않다.	16	4.8
계	332	100.0

결측값 제외(N=18)

⑦ 가족관계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가족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어렵다.’ 10.6%(36명), ‘어렵다.’ 20.6%(70명), ‘보통이다.’ 41.3%(140명), ‘어렵지 않다.’ 20.1%(68명), ‘전혀 어렵지 않다.’ 7.4%(25명)로 나타났다.

[표 I -29] 가족관계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어렵다.	36	10.6
어렵다.	70	20.6
보통이다.	140	41.3
어렵지 않다.	68	20.1
전혀 어렵지 않다.	25	7.4
계	339	100.0

결측값 제외(N=11)

⑧ 심리·사회적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어렵다.’ 16.5%(56명), ‘어렵다.’ 32.1%(109명), ‘보통이다.’ 33.5%(114명), ‘어렵지 않다.’ 13.2%(45명), ‘전혀 어렵지 않다.’ 4.7%(16명)로 나타났다.

[표 I -30] 심리·사회적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어렵다.	56	16.5
어렵다.	109	32.1
보통이다.	114	33.5
어렵지 않다.	45	13.2
전혀 어렵지 않다.	16	4.7
계	340	100.0

결측값 제외(N=10)

⑨ 대인관계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어렵다.’ 18.5%(63명), ‘어렵다.’ 30.9%(105명), ‘보통이다.’ 30.6%(104명), ‘어렵지 않다.’ 14.4%(49명), ‘전혀 어렵지 않다.’ 5.6%(19명)로 나타났다.

[표 I -31] 대인관계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어렵다.	63	18.5
어렵다.	105	30.9
보통이다.	104	30.6
어렵지 않다.	49	14.4
전혀 어렵지 않다.	19	5.6
계	340	100.0

결측값 제외(N=10)

⑩ 일상생활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어렵다.’ 17.3%(59명), ‘어렵다.’ 28.4%(97명), ‘보통이다.’ 37.0%(126명), ‘어렵지 않다.’ 15.0%(51명), ‘전혀 어렵지 않다.’ 2.3%(8명)로 나타났다.

[표 I -32] 일상생활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어렵다.	59	17.3
어렵다.	97	28.4
보통이다.	126	37.0
어렵지 않다.	51	15.0
전혀 어렵지 않다.	8	2.3
계	341	100.0

결측값 제외(N=9)

⑪ 문화생활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문화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어렵다.’ 19.0%(65명), ‘어렵다.’ 31.9%(109명), ‘보통이다.’ 34.8%(119명), ‘어렵지 않다.’ 11.7%(40명), ‘전혀 어렵지 않다.’ 2.6%(9명)로 나타났다.

[표 I -33] 문화생활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어렵다.	65	19.0
어렵다.	109	31.9
보통이다.	119	34.8
어렵지 않다.	40	11.7
전혀 어렵지 않다.	9	2.6
계	342	100.0

결측값 제외(N=8)

⑫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순위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1순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26.7%(81명)로 가장 많았고, 취업의 어려움이 18.2%(55명)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취업의 어려움이 14.0%(39명)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순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I -34]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경제적 어려움	81	26.7	28	10.0	109
취업의 어려움	55	18.2	39	14.0	94
편의시설의 어려움	9	3.0	13	4.7	21
교육의 어려움	22	7.3	18	6.5	40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35	11.6	26	9.3	61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	16	5.3	24	8.6	40
가족관계의 어려움	8	2.6	4	1.4	12
심리·사회적 어려움	14	4.6	37	13.3	51
대인관계의 어려움	31	10.2	32	11.5	63
일상생활의 어려움	21	6.9	37	13.3	58
문화생활의 어려움	11	3.6	21	7.4	32
계	303	100.0	279	100.0	581

결측값 제외 1순위(N=47), 2순위(N=71)

⑬ 어려움 발생 시 도움 요청하는 곳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에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지 물었을 때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이 63.1%(209명), ‘친구·친척·이웃들과 상의’가 3.9%(13명), ‘관공서에 도움 요청’ 6.6%(22명), ‘사회복지시설에 도움 요청’이 10.6%(35명), ‘종교단체에 도움 요청’ 1.8%(6명), ‘TV·신문·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0.9%(3명), ‘혼자서 해결’이 11.8%(39명), 기타 1.3%(4명)로 나타나 ‘가족에게 도움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총 응답 수의 1/2이 넘는 응답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 -35] 어려움 발생 시 도움 요청하는 곳

구분	빈도(명)	비율(%)
가족에게 도움 요청	209	63.1
친구·친척·이웃들과 상의	13	3.9
관공서에 도움 요청	22	6.6
사회복지시설에 도움 요청	35	10.6
종교단체에 도움 요청	6	1.8
TV·신문·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3	0.9
혼자서 해결	39	11.8
기타	4	1.3
계	331	100.0

결측값 제외(N=19)

2) 영역별 욕구

(1)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①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이 23.3%(78명), 또래와의 어울림 13.4%(45명), 사회성 향상 22.4%(75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23.0%(77명), 보호자의 시간 활용 3.6%(12명), 특기적성 개발 1.2%(4명), 다양한 체험 11.9%(40명), 기타 1.2%(4명)로 여가시간 활용,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가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6]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여가시간 활용	78	23.3
또래와의 어울림	45	13.4
사회성 향상	75	22.4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77	23.0
보호자의 시간 활용	12	3.6
특기적성 개발	4	1.2
다양한 체험	40	11.9
기타	4	1.2
계	335	100.0

결측값 제외(N=15)

②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23.5%(134명), 문화체험 21.9%(125명), 동아리활동 11.6%(66명), 나들이·여행 23.5%(134명), 스포츠 교실 10.0%(57명), 가족 프로그램 8.4%(48명), 기타 1.1%(6명)로 나타났으며 취미교양과 나들이·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다.

[표 I -37]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취미교양(음악, 공예 등 취미생활)	134	23.5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등)	125	21.9
동아리활동(음악, 뮤지컬 등)	66	11.6
나들이·여행	134	23.5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요가 등)	57	10.0
가족 프로그램 (가족캠프 형제자매프로그램 등)	48	8.4
기타	6	1.1
계	570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2) 교육 서비스

①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39.0%(131명), 사회성 향상 21.4%(72명), 특기적성 개발 3.3%(11명), 지식 향상 3.3%(11명), 향후 취업준비 6.8%(23명), 다양한 체험 14.0%(47명), 자립능력 향상 11.3%(38명), 기타 0.9%(3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8]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능력 향상	131	39.0
사회성 향상	72	21.4
특기적성 개발	11	3.3
지식 향상	11	3.3
향후 취업준비	23	6.8
다양한 체험	47	14.0
자립능력 향상	38	11.3
기타	3	0.9
계	336	100.0

결측값 제외(N=14)

②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일상생활훈련이 30.2%(173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6.1%(92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26.7%(153명), 학업보충 프로그램 4.4%(25명), 안전 및 건강교육 9.1%(52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9.6%(55명), 인권, 권익옹호교육 2.8%(16명), 기타 1.1%(6명)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9]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173	30.2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92	16.1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역사회시설 이용)	153	26.7
학업보충 프로그램	25	4.4
안전 및 건강교육	52	9.1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예술, 체육 등)	55	9.6
인권, 권익옹호교육	16	2.8
기타	6	1.1
계	572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3) 직업재활 서비스

① 향후 취업 의사

향후 취업 의사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60.2%(207명),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이 39.8%(137명)로 나타나 응답자 중 1/2 이상이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40] 향후 취업 의사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07	60.2
아니요	137	39.8
계	344	100.0

결측값 제외(N=6)

②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일상생활훈련이 17.0%(35명), 취업 현장의 체험 8.3(17명), 직업능력 향상 17.0%(35명), 취업 및 창업 16.0%(33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25.2%(52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8.7%(18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7.3%(15명), 기타 0.5%(1명)로 나타나 사회적응능력 향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41]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35	17.0
취업현장의 체험	17	8.3
직업능력 향상	35	17.0
취업 및 창업	33	16.0
사회적응능력 향상	52	25.2
사회적 안정·소속감	18	8.7
삶의 보람 및 성취감	15	7.3
기타	1	0.5
계	206	100.0

취업 의사가 있는 응답자 207명 중 결측값 제외(N=1)

③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직업상담 및 평가가 11.0%(37명), 직업적응훈련 34.7%(117명), 자격증 취득교육 16.9%(57명), 직업훈련 19.6%(66명), 직업훈련(공과훈련) 5.3%(18명), 취업알선 및 연계 11.9%(40명), 기타 0.6%(2명)로 나타났으며 직업적응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42]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직업상담 및 평가	37	11.0
직업적응훈련	117	34.7
자격증 취득교육	57	16.9
직업훈련	66	19.6
직업훈련(공과훈련)	18	5.3
취업알선 및 연계	40	11.9
기타	2	0.6
계	337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④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의 응답 분포는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22.7%(77명), 공예 8.3%(28명), 인쇄 7.1%(24명), 미용, 피부관리 5.0%(17명), 조리 7.1%(24명), 제과 제빵 22.7%(77명), 바리스타 20.0%(68명), 도배 2.7%(9명), 기타 4.4%(15명)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과 제과 제빵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단순작업’, ‘간호조무사’, ‘서비스직’, ‘운전’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I -43]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구분	빈도(명)	비율(%)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77	22.7
공예(금속, 목공, 도자기)	28	8.3
인쇄(사진, 스크린)	24	7.1
미용, 피부관리	17	5.0
조리(양식, 한식 등)	24	7.1
제과 제빵	77	22.7
바리스타	68	20.0
도배	9	2.7
기타	15	4.4
계	339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장애정도가 심해서가 43.4%(59명), 건강이 좋지 않아서 17.6%(24명), 나이가 많아서 14.0%(19명),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11.8%(16명),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2.9%(4명), 기타 10.3%(14명)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아직 어려서 생각해보지 않았다.’, ‘심리적으로 위축 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I -44]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장애정도가 심해서	59	43.4
건강이 좋지 않아서	24	17.6
나이가 많아서	19	14.0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16	11.8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4	2.9
기타	14	10.3
계	136	100.0

취업 의사가 없는 응답자 137명 중 결측값 제외(N=1)

(4) 재가복지 서비스

①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해 물어봤을 때, 경제지원 24.9%(147명), 일상생활지원 26.9%(159명), 정서지원 7.5%(44명), 주거지원 5.8%(34명), 건강지원 10.7%(63명), 문화여가지원 15.6%(92명), 재활정보 제공 4.2%(25명), 인권 및 권익옹호교육 1.4%(8명), 자조모임 2.7%(16명), 기타 0.3%(2명)로 나타나 일상생활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지원에 대해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다.

[표 I -45]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지원	147	24.9
일상생활지원	159	26.9
정서지원	44	7.5
주거지원	34	5.8
건강지원	63	10.7
문화여가지원	92	15.6
재활정보 제공	25	4.2
인권 및 권익옹호교육	8	1.4
자조모임	16	2.7
기타	2	0.3
계	590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② 희망하는 경제지원 서비스

희망하는 경제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생계비, 생활비 지원 49.7%(164명), 의료비 지원 16.4%(54명), 교육비 지원 19.4%(64명), 반찬, 생필품 지원 11.8%(39명), 주거 보증금 지원 2.7%(9명)로 나타났다. 그 중 생계비, 생활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46] 희망하는 경제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생계비, 생활비 지원	164	49.7
의료비 지원	54	16.4
교육비 지원	64	19.4
반찬, 생필품 지원	39	11.8
주거 보증금 지원	9	2.7
계	330	100.0

결측값 제외(N=20)

③ 희망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희망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가사 지원 46.5%(154명), 이미용 서비스 9.1%(30명), 목욕 지원 4.8%(16명), 외출 지원 30.8%(102명), 보장구 대여 4.9%(16명), 기타 3.9%(13명)로 나타났다. 그 중 가사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외출지원이 높은 욕구를 보였다.

[표 I -47] 희망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가사 지원	154	46.5
이미용 서비스	30	9.1
목욕 지원	16	4.8
외출 지원	102	30.8
보장구 대여	16	4.9
기타	13	3.9
계	331	100.0

결측값 제외(N=19)

④ 희망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희망하는 정서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상담서비스 39.3%(128명), 말벗 지원 34.4%(112명), 안부전화 6.4%(21명), 동료상담 13.5%(44명), 기타 6.4%(21명)로 나타났다. 그 중 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48] 희망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상담서비스	128	39.3
말벗 지원	112	34.4
안부전화	21	6.4
동료상담	44	13.5
기타	21	6.4
계	326	100.0

결측값 제외(N=24)

⑤ 희망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희망하는 주거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도배/장판 지원 16.8%(54명), 집수리 지원 21.8%(70명), 가정 내 편의시설 지원 16.2%(52명), 청소, 소독 지원 39.3%(126명), 기타 5.9%(19명)로 나타났다. 그 중 청소, 소독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49] 희망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도배/장판 지원	54	16.8
집수리 지원	70	21.8
가정 내 편의시설 지원	52	16.2
청소, 소독 지원	126	39.3
기타	19	5.9
계	321	100.0

결측값 제외(N=29)

⑥ 희망하는 건강지원 서비스

희망하는 건강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건강검진이 37.6%(124명), 건강교육 7.3%(24명), 재활프로그램 지원 23.6%(78명), 체력단련실 운영 23.6%(78명), 혈압, 혈당 관리 6.7%(22명), 기타 1.2%(4명)로 나타났다. 그 중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50] 희망하는 건강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건강검진	124	37.6
건강교육	24	7.3
재활프로그램 지원	78	23.6
체력단련실 운영	78	23.6
혈압, 혈당 관리	22	6.7
기타	4	1.2
계	330	100.0

결측값 제외(N=20)

⑦ 희망하는 문화여가 서비스

희망하는 문화여가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나들이 37.7%(126명), 공연, 영화 관람 36.5%(122명), 취미교실 18.3%(61명), 자조모임 6.3%(21명), 기타 1.2%(4명)로 나타났다. 그 중 나들이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공연, 영화 관람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51] 희망하는 문화여가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나들이	126	37.7
공연, 영화 관람	122	36.5
취미교실	61	18.3
자조모임	21	6.3
기타	4	1.2
계	334	100.0

결측값 제외(N=16)

3) 건의사항

서술형으로 ‘남동구나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물어본 결과, 여러 응답이 나왔으며 내용을 추려 복지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 시설·운영관련,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관련, 기타 의견 4가지로 분류하였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복지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

- 방과후프로그램 확대.
- 성인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확대.
- 중증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확대.
- 지적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뇌병변 장애부터 다양한 장애유형이 이용할 수 있는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면 함.
- 평생학습에 있어 초급, 중급반을 나누어 운영했으면 함.(평생학습 이용인 확대 모집 및 수준별 수업 진행)
- 주말에도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신설(동아리 형태).

② 복지관 시설·운영 관련

- 이용인 욕구에 맞는 셔틀버스 노선도 변경 및 홍보 희망.
- 사회복지사 및 치료사 확충.
- 인천 내 장애인복지관 정보 부족.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등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확대 희망.

③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관련

- 경제적, 물품 지원 확대.
- 문화·여가활동 지원 확대.
- 말벗 지원, 정서 지원 확대.
- 현재 수요에 비해 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함. 치료기관의 증설 희망.
- 바우처 시설 확대.
- 장애인 취업 시 차별이 있거나 장애인고용정책을 위반하는 취업장이 다수 있음. 이에 따른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창출해주었음 좋겠음.
- 장애인 여행을 위한 차량대여 및 여행동행서비스 희망.
-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다수임.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면 함.

④ 기타 의견

- 설문내용이 생애주기별로 나뉘어져 있었으면 좋겠음.

2019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요약 및 제언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요약 및 제언

1. 요약

2019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는 2019년 11월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타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장애인 등 욕구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동구 비거주 장애인은 사전에 배제하였고(최근 거주지를 남동구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자는 설문에 응답), 비동의자 등 현실적 답변이 어려운 대상자를 제외한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설문지 350부를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2018 남동구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실태조사(2019)」, 「갈산종합사회복지관, 2017 지역주민욕구 조사 보고서(2017)」 및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18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2019)」,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17 지역사회욕구조사 보고서(2018)」, 「평택복지재단,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2011)」 설문문항을 일부 반영하여 복지관 상황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 하였으며,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개인적 문제, 장애인복지 영역별 서비스 욕구, 건의사항 등 기관에서 파악하고자하는 욕구를 알기위해 각 부분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장애인과 의 관계에서는 본인 42.4%(146명), 가족 46.5%(160명), 외부인 11.1%(38명)로 조사되었다.

성별 분포는 ‘남자’ 50.6%(175명), 여자 49.4%(171명)로 조사되어 남자가 여자보다 1.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는 0-9세 이하가 13.8%(45명), 10-19세 이하가 10.7%(35명), 20-29세 이하가 22.3%(73명), 30-39세 이하가 12.5%(41명), 40-49세 이하가 11.9%(39명), 50-59세 이하가 11.6%(38명), 60-69세 이하가 9.5%(31명), 70세 이상이 7.7%(25명)로 나타나 20-29세 이하 연령대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 분포는 남녀모두 20-29세 이하 응답자가 22.1%(36명), 22.8%(37명)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남성은 0-9세 이하 19.0%(31명), 여성은 40-49세 이하, 50-59세 이하가 각각 14.8%(24명)로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남성은 30-39세 이하 16.0%(26명), 여성은 60-69세 이하 11.7%(19명)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0-9세 이하 응답자는 남성이 19.0%, 여성이 8.6%로 약 2배 이상 남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수준은 수급자 27.6%(94명), 차상위 9.7%(33명), 비수급자(일반) 62.7%(214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65.0%(219명), 기혼이 21.7%(73명), 이혼이 7.4%(25명), 사별이 5.3%(18명), 별거 0.6%(2명)로 나타나 미혼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미취학이 12.5%(42명), 초등학교 재학·졸업이 18.8%(63명), 중학교 재학·졸업이 8.0%(27명),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49.4%(166명), 대학교 재학·졸업이 10.7%(36명), 무학이 0.6%(2명)로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총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27.4%(89명), 100-200만원 미만 20.9%(68명), 200-300만원 미만 16.6%(54명), 300-400만원 미만 10.8%(35명), 400-500만원 미만 14.5%(47명), 500만원 이상이 9.8%(32명)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자가가 51.3%(175명), 전세 13.2%(45명), 월세 13.5%(46명), 영구임대 16.4%(56명), 기타 5.6%(19명)로 나타나 자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에는 '그룹홈'에 거주 중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가족구성형태는 1인가구(독거) 17.3%(58명), 부부 8.7%(29명), 부부+자녀 51.9%(174명), 한부모+자녀 15.8%(53명), 조부모+부부+손자녀 3.3%(11명), 조부모+손자녀 1.5%(5명), 형제 1.5%(5명)로 나타나 부부+자녀가 총 응답수의 1/2을 차지했다.

함께 사는 가족 수는 1명 14.2%(47명), 2명 18.4%(61명), 3명 24.2%(80명), 4명 36.0%(119명), 5명 6.0%(20명), 6명 1.2%(4명)로 나타났다.

가족 내 장애인 수는 1명이 91.2%(281명), 2명 6.5%(20명), 3명 1.3%(4명), 4명 1.0%(3명)로 나타나 가족 내 장애인 수가 1명인 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남동구 80.2%(279명), 인천타지역 15.8%(55명), 타시도 4.0%(14명)로 나타나 남동구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 거주기간은 1년 이하 1.5%(4명), 1년 초과~5년 이하 19.4%(54명), 5년 초과~10년 이하 21.2%(59명), 10년 초과 57.9%(161명)로 나타나 10년 초과 거주자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남동구거주기간은 16.2년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관련 특성 ■

장애등록 유무는 등록 92.3%(323명), 미등록이 7.7%(27명)로 나타나 응답한 장애인 10명 중 1명꼴로 장애 미등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를 몰라서’가 4.2%(1명), ‘장애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가 20.8%(5명), ‘등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8.4%(2명),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20.8%(5명), ‘등록장애에 해당되지 않아서’가 25.0%(6명), 기타가 20.8%(5명)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나이가 어려서’, ‘내년에 등록 예정’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 15.7%(58명), 시각장애 4.1%(15명), 뇌병변장애 15.4%(57명), 청각장애 5.1%(19명), 언어장애 7.3%(27명), 지적장애 27.8%(103명), 자폐성장애 12.7%(47명), 정신장애 5.4%(20명), 신장장애 3.0%(11명), 호흡기장애 1.1%(4명), 안면장애 0.3%(1명), 장루·요루장애 0.3%(1명), 뇌전증장애 1.8%(7명)로 나타나 지적장애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는 남성, 여성 둘 다 지적장애 응답자가 27.7%(43명), 28.9%(43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성은 자폐성장애 17.4%(27명), 여성은 지체장애 24.2%(36명)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자폐성장애는 남성이 17.4%, 여성이 6.0%로 약 2배 이상 남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언어장애는 남성이 7.1%, 여성이 3.4%로 약 2배 이상 남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에서 0~9세는 뇌병변장애가 48.6%(17명)으로 가장 많았고, 10~19세는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각각 34.4%(11명), 20~29세는 지적장애 60.9%(42명), 30~39세는 지적장애 43.2%(16명), 40~49세는 지체장애 32.2%(10명), 50~59세는 지체장애 36.1%(13명), 60~69세는 뇌병변장애 26.9%(7명), 70세~는 지체장애 54.6%(12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등급 분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81.5%(259명),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8.5%(59명)로 나타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 지체장애가 16.3%(40명), 시각장애 2.0%(5명), 뇌병변장애 19.2%(47명), 청각장애 2.9%(7명), 언어장애 2.9%(7명), 지적장애 33.1%(81명), 자폐성장애 14.7%(36명), 정신장애 5.3%(13명), 신장장애 2.0%(5명), 호흡기장애 1.2%(3명), 안면장애 0.0%(0명), 장루·요루장애 0.4%(1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중증장애 중 지적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는 지체장애 7.4%(18명), 시각장애 12.3%(7명), 뇌병변장애 7.0%(4명), 청각장애 15.8%(9명), 언어장애 12.3%(7명), 지적장애 5.3%(3명), 신장장애 7.0%(4명), 호흡기장애 0.0%(0명), 안면장애 1.8%(1명), 장루·요루장애 0.0%(0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경증장애 중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욕구조사결과

■ 개인적 문제 ■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 16.7%(58명), ‘어렵다.’ 28.8%(100명), ‘보통이다.’ 40.6%(141명), ‘어렵지 않다.’ 10.1%(35명), ‘전혀 어렵지 않다.’ 3.8%(13명)로 나타났다.

취업의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 34.4%(116명), ‘어렵다.’ 30.0%(101명), ‘보통이다.’ 23.1%(78명), ‘어렵지 않다.’ 8.3%(28명), ‘전혀 어렵지 않다.’ 4.2%(14명)로 나타났다. ‘매우 어렵다.’의 응답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의시설의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 15.2%(52명), ‘어렵다.’ 25.9%(89명), ‘보통이다.’ 43.1%(148명), ‘어렵지 않다.’ 12.5%(43명), ‘전혀 어렵지 않다.’ 3.3%(11명)로 나타났다.

교육의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 20.5%(69명), ‘어렵다.’ 28.8%(97명), ‘보통이다.’ 36.2%(122명), ‘어렵지 않다.’ 11.3%(38명), ‘전혀 어렵지 않다.’ 3.2%(11명)로 나타났다.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 16.6%(57명), ‘어렵다.’ 28.6%(98명), ‘보통이다.’ 38.5%(132명), ‘어렵지 않다.’ 13.4%(46명), ‘전혀 어렵지 않다.’ 2.9%(10명)로 나타났다.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 18.7%(62명), ‘어렵다.’ 28.9%(96명), ‘보통이다.’ 34.9%(116명), ‘어렵지 않다.’ 12.7%(42명), ‘전혀 어렵지 않다.’ 4.8%(16명)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 10.6%(36명), ‘어렵다.’ 20.6%(70명), ‘보통이다.’ 41.3%(140명), ‘어렵지 않다.’ 20.1%(68명), ‘전혀 어렵지 않다.’ 7.4%(25명)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 16.5%(56명), ‘어렵다.’ 32.1%(109명), ‘보통이다.’ 33.5%(114명), ‘어렵지 않다.’ 13.2%(45명), ‘전혀 어렵지 않다.’ 4.7%(16명)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 18.5%(63명), ‘어렵다.’ 30.9%(105명), ‘보통이다.’ 30.6%(104명), ‘어렵지 않다.’ 14.4%(49명), ‘전혀 어렵지 않다.’ 5.6%(19명)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 17.3%(59명), ‘어렵다.’ 28.4%(97명), ‘보통이다.’ 37.0%(126명), ‘어렵지 않다.’ 15.0%(51명), ‘전혀 어렵지 않다.’ 2.3%(8명)로 나타났다.

문화생활의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 19.0%(65명), ‘어렵다.’ 31.9%(109명), ‘보통이다.’

34.8%(119명), ‘어렵지 않다.’ 11.7%(40명), ‘전혀 어렵지 않다.’ 2.6%(9명)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1순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26.7%(81명)로 가장 많았고, 취업의 어려움이 18.2%(55명)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취업의 어려움이 14.0%(39명)로 가장 많았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에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지 물었을 때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이 63.1%(209명), ‘친구·친척·이웃들과 상의’가 3.9%(13명), ‘관공서에 도움 요청’ 6.6%(22명), ‘사회복지시설에 도움 요청’이 10.6%(35명), ‘종교단체에 도움 요청’ 1.8%(6명), ‘TV·신문·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0.9%(3명), ‘혼자서 해결’이 11.8%(39명), 기타 1.3%(4명)로 나타나 ‘가족에게 도움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총 응답 수의 1/2이 넘는 응답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영역별 욕구 ■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은 여가시간 활용이 23.3%(78명), 또래와의 어울림 13.4%(45명), 사회성 향상 22.4%(75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23.0%(77명), 보호자의 시간 활용 3.6%(12명), 특기적성 개발 1.2%(4명), 다양한 체험 11.9%(40명), 기타 1.2%(4명)로 여가시간 활용,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가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는 취미교양이 23.5%(134명), 문화체험 21.9%(125명), 동아리활동 11.6%(66명), 나들이·여행 23.5%(134명), 스포츠 교실 10.0%(57명), 가족 프로그램 8.4%(48명), 기타 1.1%(6명)로 나타났으며 취미교양과 나들이·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다.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39.0%(131명), 사회성 향상 21.4%(72명), 특기적성 개발 3.3%(11명), 지식 향상 3.3%(11명), 향후 취업준비 6.8%(23명), 다양한 체험 14.0%(47명), 자립능력 향상 11.3%(38명), 기타 0.9%(3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는 일상생활훈련이 30.2%(173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6.1%(92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26.7%(153명), 학업보충 프로그램 4.4%(25명), 안전 및 건강교육 9.1%(52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9.6%(55명), 인권, 권익 옹호교육 2.8%(16명), 기타 1.1%(6명)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취업 의사는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60.2%(207명),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이 39.8%(137명)로 나타나 응답자 중 1/2 이상이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훈련이 17.0%(35명), 취업현장의 체험 8.3%(17명), 직업능력 향상 17.0%(35명), 취업 및 창업 16.0%(33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25.2%(52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8.7%(18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7.3%(15명), 기타 0.5%(1명)로 나타나 사회적응능력 향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는 직업상담 및 평가가 11.0%(37명), 직업적응훈련 34.7%(117명), 자격증 취득교육 16.9%(57명), 직업훈련 19.6%(66명), 직업훈련(공과훈련) 5.3%(18명), 취업알선 및 연계 11.9%(40명), 기타 0.6%(2명)로 나타났으며 직업적응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은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22.7%(77명), 공예 8.3%(28명), 인쇄 7.1%(24명), 미용, 피부관리 5.0%(17명), 조리 7.1%(24명), 제과 제빵 22.7%(77명), 바리스타 20.0%(68명), 도배 2.7%(9명), 기타 4.4%(15명)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과 제과 제빵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단순작업’, ‘간호조무사’, ‘서비스직’, ‘운전’ 등의 의견이 있었다.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정도가 심해서가 43.4%(59명), 건강이 좋지 않아서 17.6%(24명), 나이가 많아서 14.0%(19명),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11.8%(16명),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2.9%(4명), 기타 10.3%(14명)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아직 어려서 생각해보지 않았다.’, ‘심리적으로 위축 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는 경제지원 24.9%(147명), 일상생활지원 26.9%(159명), 정서지원 7.5%(44명), 주거지원 5.8%(34명), 건강지원 10.7%(63명), 문화여가지원 15.6%(92명), 재활정보 제공 4.2%(25명), 인권 및 권익옹호교육 1.4%(8명), 자조모임 2.7%(16명), 기타 0.3%(2명)로 나타나 일상생활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지원에 대해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다.

희망하는 경제지원 서비스는 생계비, 생활비 지원 49.7%(164명), 의료비지원 16.4%(54명), 교육비 지원 19.4%(64명), 반찬, 생필품 지원 11.8%(39명), 주거 보증금 지원 2.7%(9명)로 나타났다. 그 중 생계비, 생활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가사 지원 46.5%(154명), 이미용 서비스 9.1%(30명), 목욕 지원 4.8%(16명), 외출 지원 30.8%(102명), 보장구 대여 4.9%(16명), 기타 3.9%(13명)로 나타났다. 그 중 가사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외출지원이 높은 욕구를 보였다.

희망하는 정서지원 서비스는 상담서비스 39.3%(128명), 말벗 지원 34.4%(112명), 안부전화 6.4%(21명), 동료상담 13.5%(44명), 기타 6.4%(21명)로 나타났다. 그 중 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주거지원 서비스는 도배/장판 지원 16.8%(54명), 집수리 지원 21.8%(70명), 가정 내 편의시설 지원 16.2%(52명), 청소, 소독 지원 39.3%(126명), 기타 5.9%(19명)로 나타났다. 그 중 청소, 소독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건강지원 서비스는 건강검진이 37.6%(124명), 건강교육 7.3%(24명), 재활프로그램 지원 23.6%(78명), 체력단련실 운영 23.6%(78명), 혈압, 혈당 관리 6.7%(22명), 기타 1.2%(4명)로 나타났다. 그 중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문화여가 서비스는 나들이 37.7%(126명), 공연, 영화 관람 36.5%(122명), 취미교실 18.3%(61명), 자조모임 6.3%(21명), 기타 1.2%(4명)로 나타났다. 그 중 나들이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공연, 영화 관람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설문조사는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지역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에 원하는 욕구에서 나아가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서비스의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복지관의 향후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3가지의 결론을 유추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상생활 속 어려움 중 경제적,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일상생활 속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1순위 경제적 어려움이 26.7%(81명), 2순위 취업의 어려움이 14.0%(39명)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재가복지서비스(경제적 지원)에서도 생계비, 생활비 지원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건의사항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고, 취업 후에도 차별받거나 취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자신의 수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과 경제적 안정,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남동구에서는 생계비 지원 및 지속적 후원 연계와 장애인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관에서는 직업재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취업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훈련 및 취업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 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기금 및 현물지원 등을 위한 지속적 후원 연계 및 신규 후원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남동구 장애인의 영역별 욕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총 4가지의 영역별로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해 물었으며, 다음 결과는 각 희망하는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 취미교양(음악, 공예, 요리 등 취미생활 관련)
-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스포츠 경기 관람 등)

■ 교육 서비스

- 일상생활훈련
- 사회적응 프로그램(지역사회시설 이용)

■ 직업재활 서비스

-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 제과제빵
- 재가복지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 경제지원
- 재가복지 서비스(경제지원)
 - 생계비, 생활비 지원
- 재가복지 서비스(일상생활지원)
 - 가사 지원
- 재가복지 서비스(정서지원)
 - 상담서비스
- 재가복지 서비스(주거지원)
 - 청소, 소독 지원
- 재가복지 서비스(건강지원)
 - 건강검진
- 재가복지 서비스(문화여가)
 - 나들이

이처럼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남동구 장애인의 욕구를 광의적 의미를 넘어 협의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교육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연령의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다.

방과후, 성인, 중증장애인 등 다양한 연령 및 장애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욕구는 매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보호자가 돌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복지관 내 사회복지사를 확충하는 것은 불가하여 기관 프로그램을 확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따라 관공서,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도 직접적으로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적극적 시민의 역량 강화 및 참여가 필요할 것이며, 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이 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에 비해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서비스 부족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욕구조사를 통해 내년 사업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복지관 이용인 및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이용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9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설문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설문지ID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남동구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안녕하세요?

귀하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희 남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지역 장애인의 문제점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는 복지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쓰여 질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통계법」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보장이 되며, 통계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다음은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세요.

* 만일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하여 응답할 때, **장애인 당사자를 기준**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1.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와의 관계	__① 본인(당사자) __②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 친척 등) __③ 외부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__④ 기타()		
성 별	__① 남자 __② 여자	나 이	만 _____ 세
경 제 수 준	__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__② 차상위 __③ 일반		
결 혼 상 태	__① 미혼 __② 기혼 __③ 이혼 __④ 사별 __⑤ 별거 __⑥ 기타()		
학 력	__① 미취학 __② 초등학교 재학·졸업 __③ 중학교 재학·졸업 __④ 고등학교 재학·졸업 __⑤ 대학교 재학·졸업 __⑥ 무학		
가구 월평균 총소득 (가구원 소득 전체 합산)	__① ~100만원 미만 __② 100~200만원 미만 __③ 200~300만원 미만 __④ 300~400만원 미만 __⑤ 400~500만원 미만 __⑥ 500만원 이상		
주택소유 형태	__① 자가 __② 전세 __③ 월세 __④ 영구임대 __⑤ 기타()		
가족구성 형태	__① 1인가구(독거) __② 부부 __③ 부부+자녀 __④ 한부모+자녀 __⑤ 조부모+부부+손자녀 __⑥ 조부모+손자녀 __⑦ 형제(남매, 자매)		
함께 사는 가족 수 (본인 포함)	_____명	가족 중 장애인 수 (본인 포함)	_____명
거 주 지 역	__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__② 인천광역시내 타 지역 __③ 타 시도		
남동구 거주 기간	_____년 _____개월 (남동구 거주자에 한함)		

2. 다음은 귀하의 장애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등록 유무	__① 등록 __② 미등록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미등록만 응답해주세요.)	__① 등록 절차를 몰라서 __② 장애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__③ 등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__④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__⑤ 등록장애에 해당되지 않아서 __⑥ 기타()		
장 애 유 형 (중복장애인 경우 모두 표기해주세요)	__① 지체장애 __④ 청각장애 __⑦ 자폐성장애 __⑩ 심장장애 __⑬ 뇌전증장애	__② 시각장애 __⑤ 언어장애 __⑧ 정신장애 __⑪ 호흡기장애 __⑭ 안면장애	__③ 뇌병변장애 __⑥ 지적장애 __⑨ 신장장애 __⑫ 간장애 __⑮ 장루·요루장애
장 애 정 도	__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1~3급) __②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4~6급)		

Ⅱ.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3. 귀하나 가족이 현재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 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취업의 어려움					
③ 편의시설의 어려움					
④ 교육의 어려움					
⑤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⑥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					
⑦ 가족관계의 어려움					
⑧ 심리·사회적 어려움					
⑨ 대인관계의 어려움					
⑩ 일상생활의 어려움					
⑪ 문화생활의 어려움					

4. 위의 어려움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 되는 것 **1순위, 2순위**를 번호로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5.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에 주로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__ ① 가족에게 도움 요청 __ ③ 관공서에 도움 요청 __ ⑤ 종교단체에 도움 요청 __ ⑦ 혼자서 해결	__ ② 친구·친척·이웃들과의 상의 __ ④ 사회복지시설에 도움 요청 __ ⑥ TV·신문·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__ ⑧ 기타 ()
---	--

Ⅲ. 다음은 **영역별 욕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6.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여가시간 활용 | ☐ ② 또래와의 어울림 |
| ☐ ③ 사회성 향상 | ☐ ④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
| ☐ ⑤ 보호자의 시간 활용 | ☐ ⑥ 특기적성 개발 |
| ☐ ⑦ 다양한 체험 | ☐ ⑧ 기타() |

7.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두가지선택)

- | |
|---|
| ☐ ① 취미교양(음악, 공예, 요리 등 취미생활 관련) |
| ☐ ②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스포츠 경기 관람 등) |
| ☐ ③ 동아리활동(음악, 뮤지컬, 연극 등) |
| ☐ ④ 나들이·여행 |
| ☐ ⑤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볼링, 요가 등) |
| ☐ ⑥ 가족 프로그램(가족캠프, 형제자매 프로그램 등) |
| ☐ ⑦ 기타() |

<다음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8.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일상생활능력 향상 | ☐ ② 사회성 향상 |
| ☐ ③ 특기적성 개발 | ☐ ④ 지식 향상 |
| ☐ ⑤ 향후 취업준비 | ☐ ⑥ 다양한 체험 |
| ☐ ⑦ 자립능력 향상 | ☐ ⑧ 기타() |

9.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두가지선택)

- | | |
|---|---|
| ☐ ① 일상생활훈련 | ☐ ②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
| ☐ ③ 사회적응 프로그램(지역사회시설 이용) | ☐ ④ 학업보충 프로그램 |
| ☐ ⑤ 안전 및 건강교육 | ☐ ⑥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예술·체육 등) |
| ☐ ⑦ 인권, 권익옹호교육 | ☐ ⑧ 기타() |

<다음은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앞으로 직업을 가지고 취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__① 예 (☞11번으로)

__② 아니요 (☞14번으로)

11.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__① 일상생활훈련

__② 취업현장의 체험

__③ 직업능력 향상

__④ 취업 및 창업

__⑤ 사회적응능력 향상

__⑥ 사회적 안정·소속감

__⑦ 삶의 보람 및 성취감

__⑧ 기타()

12.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__① 직업상담 및 평가

__② 직업적응훈련

__③ 자격증 취득교육

__④ 직업훈련

__⑤ 직업훈련(공과훈련)

__⑥ 취업알선 및 연계

__⑦ 기타()

13. 귀하가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교육을 희망하십니까?(두가지선택)

__①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__② 공예(금속, 목공, 도자기)

__③ 인쇄(사진, 스크린)

__④ 미용, 피부관리

__⑤ 조리(양식, 한식 등)

__⑥ 제과 제빵

__⑦ 바리스타

__⑧ 도배

__⑨ 기타()

14.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① 장애정도가 심해서

__② 건강이 좋지 않아서

__③ 나이가 많아서

__④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__⑤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__⑥ 급여가 낮아서

__⑦ 기타()

<다음은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5. 귀하가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가지선택)

__① 경제지원	__② 일상생활지원	__③ 정서지원
__④ 주거지원	__⑤ 건강지원	__⑥ 문화여가지원
__⑦ 재활정보 제공	__⑧ 인권 및 권익옹호교육	__⑨ 자조모임
__⑩ 기타()		

16. 귀하가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를 **분야별로 1가지씩** 선택해주세요.

경제지원	__① 생계비 생활비 지원 __② 의료비 지원 __③ 교육비 지원 __④ 반찬 생필품 지원 __⑤ 주거 보증금 지원 __⑥ 기타()
일상생활 지원	__① 가사 지원 __② 이미용 서비스 __③ 목욕 지원 __④ 외출 지원 __⑤ 보장구 대여 __⑥ 기타()
정서지원	__① 상담서비스 __② 말벗 지원 __③ 안부전화 __④ 동료상담 __⑤ 기타()
주거지원	__① 도배/장판 지원 __② 집수리 지원 __③ 가정 내 편의시설 지원 __④ 청소, 소독 지원 __⑤ 기타()
건강지원	__① 건강검진 __② 건강교육 __③ 재활프로그램 지원 __④ 체력단련실 운영 __⑤ 혈압, 혈당 관리 __⑥ 기타()
문화여가	__① 나들이 __② 공연, 영화 관람 __③ 취미교실 __④ 자조모임 __⑤ 기타()

17. 남동구나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9년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남동발간 2019-10

- 발행일 : 2019년 12월
- 발행인 : 손 동 훈
- 편집인 : 이 연 정
-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

